

아이들 마음에 자연 물들이기



선재 유아 자연체험 캠프 현장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네, 녹슨 철봉, 질경이와 토끼풀 무성한 운동장, 그리고 '반공소년 이승복' 동상. 오늘날 우리가 폐교라고 부르는, 문 닫은 시골학교의 풍경이다. 충북 충주시 양성면의 '양성초등학교 영죽분교'도 그런 학교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 학교는 지금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인 '선재마을'에서 세운 '선재학교'로 거듭나 있다.

15~16일,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연꽃어린이집' 아이들 39명과 함께하는 '선재 유아 자연체험 캠프'에 동행했다. 냉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자연 캠프니 크기 훈련이니 하면서 유격 훈련을 시키고, 저녁이면 폭죽 터트리기와 캠프파이어로 일관하는 판에 박힌 모습을 너무 자주 봐 왔기 때문이다. 물론 '선재학교'의 프로그램은 달랐다. 하지만 그것 또한 걱정스러웠다. '자연 염색, 식물도감만들기, 꽃과 풀잎으로 그림엽서 만들기...' 대부분 어느 정도 집중이 요구되는 것들이었다. 과연 5~7살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시들만 하고 어른들이 다 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 아이들은 유연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물처럼, 즐겁게 때론 진지하게 그것들을 해 냈다. 그날 그 아이들은 '서울' 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일 뿐이었다. 그 모습 그대로 자연이었다.



자연물들이기

■ 치자, 홍화, 황도. 아이들이 물들이, 아니 아이들이 물들이 천연 염색 재료들이다. 간단한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몇 명씩 모듬을 이뤄 면 셔츠와 찻수건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조물락조물락하다가 짜르르 수돗가로 달려가 한 번 행궤내고 다시 조물락조물락. 신기함과 재미. 그것만 있으면 아이들은 물들의 귀재들이다. 곱게 물든 옷과 찻수건이 나뭇가지에 걸려져 멋진 설치 미술로 바뀐다. 아이들의 마음도 거기 걸린다.



식물도감만들기

■ 꽃잎과 풀잎에 밀가루 풀을 바른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지에 붙인다. 풀잎이 잠자리로 변신하고 꽃잎이 구름으로 바뀐다. 어떤 아이들의 작품은 천재 화가의 추상화를 닮았다. 그 기발한 상상력이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이라 불리는 획일화의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



감자재기

■ 농약도 비료도 하지 않은 감자밭은 잡초가 주인처럼 보였다. "야, 뱀이다" 하는 소리에 퍼덕 고개를 돌리니 지렁이가 꿈뽕뽕. 호미 대신 아이들의 손이 지렁이처럼 훑을 뉘었다. 땅 속 보물찾기. 구슬만한 것에서부터 주먹보다 큰 감자가 비구니에 쌓인다. 그것들은 저력 반찬과 간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들 손의 감촉도 뱃속에 남게 되겠다.



놀이마당

■ 굴렁쇠 줄다리기. 굴렁쇠로 어떻게 줄다리기를? 굴렁쇠를 맞잡은 두 아이 뒤로 줄지어 선 다음 두 팔로 허리를 감싸고 깍지를 끼면 준비 끝. 시작과 함께 공무니를 길게 빼고 안간힘을 쓴다. 한 사람이라도 손을 풀면 지게 된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지켜보는 친구들도 '이겨라' 가 아니고 '잘 해라, 잘 해라' 하고 응원을 보내지 않는다.

연날리기

■ 우리가 흔히 날리던 그런 연이 아니다. 바람의 힘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실을 잡고 달리는 동안만 나는 연이다. 연날리기보다는 달리기 가깝다. 자신이 날리는 연을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즐거워한다. 용처럼 꼬리를 꿈틀대는 친구의 연날리기에서 자신을 봤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혼자 하는 놀이도 훌륭한 공동체놀이가 된다.

'선재학교'는 어떤 곳?

어린이·청소년포교위해 93년 설립 팬시상품 개발 '선재마을'이 모태

자연을 배경으로 '깨짐과 나눔'의 교육을 목표로 한 선재학교(교장 유지선 박사). '어린이 시골체험 캠프', '유아 자연체험 캠프', '여름·겨울 인도 캠프'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옛 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학교', '청소년 지도자 연수' 등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연다. 1993년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설립, 최초로 불교 팬시상품을 개발하기도 한 '선재마을'이 모태다.

서울 상봉동에서 선재법당을 운영했으나 안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2002년 초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영죽리로 등지를 옮겼다. 부처님과 청소년을 만나게 한 유일한 징검다리였던 무가 포교지 <속삭임>을 50호까지 발행했으나 재정난 때문에 휴간에 들어간 상태다. (연락처:043-855-0408,8319/011-491-3359)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증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질병으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